

광주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 1위는 나주 주민들

외지인 소유주택 5만7800호 중 4900호...5년 연속 1위 나주 다주택자 5474명...전체 3만4531명의 15.9% 차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근 출퇴근이 늘면서 광주 주택을 지닌 외지인 가운데 나주 주민이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외지인 소유 주택 수는 총 5만7800호로, 이 가운데 나주 거주민 보유 주택이 4900호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외지인 소유 주택 수의 8.5% 비중으로, 나주에 이어 담양(3600호·6.2%), 화순(3300호·5.7%) 등 순이었다.

관련 조사를 벌인 2016년부터 광주 주택 소유자의 거주지역 상위 1순위는 나주시가 5년 연속 차

지하고 있다.

나주 거주민이 소유한 광주 주택 수는 2016년 4100호, 2017년 4700호, 2018년 4900호 등으로 늘다가 2019년에는 5000호를 넘겼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100호 가량 줄었다.

나주 거주민의 광주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은 7.8% (2016년)→8.4% (2017년)→8.5% (2018년)→8.6% (2019년)→8.5% (2020년) 등으로 나타났다.

나주 주택을 소유한 다른 사·도민 수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1만명이 넘었다.

지난해 기준 타 사·도 거주자 소유 나주 주택 수는 1만375호로, 나주 전체 주택(4만315호)의

25.7%를 차지했다.

다른 사·도 거주민 소유주택은 2016년 8041호 (25.0%)에서 2017년 9740호(26.4%), 2018년 1만359호(26.5%), 2019년 1만527호(26.2%) 등으로 늘었다.

나주 거주민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지난 2016년 71.7%(2만3048호)에서 2017년 69.8%(2만5809호), 2018년 69.5%(2만7177호), 2019년 69.5%(2만7924호)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해 70.0%(2만8208호)로 반등했다.

지난해 전남 다른 시·군·구 거주자가 소유한 나주 주택 수는 1732호로, 전체 주택의 4.3% 비중을 차지했다.

나주에 사는 다주택자는 5474명으로, 나주 전체 주택 소유자 3만4531명의 15.9%를 차지했다.

나주 다주택자는 2016년 3758명, 2017년 4694명, 2018년 4969명 등으로 크게 늘다가 2019년 5476명, 지난해 5474명 등 5000선을 넘겼다.

지난해 주택 두 채를 지닌 나주 거주민은 4608명, 2호 초과는 866명이었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최근 들어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3.3㎡) 1100만원으로 뛰기도 했다. 이는 올해 광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풍선효과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이 올해 8~10월 석달 동안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변동 추세를 분석해보니, 한전 인근 A아파트 분양가(33평형)는 7년 전보다 2억7000만원 오른 5억원으로 조사됐다. B아파트는 2012~2013년 2억원에서 올 10월 3억 3000만원으로 올랐고, C아파트는 2014~2015년 2억1000만원~3억원, D아파트 2014년 2억5000만원~4억5000만원, E아파트 2015년 2억3000만원~4억원 등으로 최대 2배 넘게 급등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홈페이지 새단장 다음 달 모바일 앱 출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다음 달 모바일 앱을 새롭게 내놓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TP 디지털 혁신'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과제로 대내외 의견을 반영해왔다.

홈페이지는 기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제공되는 것과 달리 크롬·에지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연금정보 서비스 업무와 제휴복지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오는 12월 중순 열 예정인 모바일 앱에서는 연금 서비스와 제휴복지서비스, 챗봇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는 연금정보 조회, 퇴직급여대여신청, 모바일 회원증 탑재 등이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지능형 인력계수 도입 '골든타임' 구조율 높인다



한전KDN이 최근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나주소방서와 '스마트 소방활동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화재 건물 내 잔여 인력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시연회·실증 훈련 진행 화재 현장 증별 인원 파악 가능

한전KDN과 나주소방서가 지능형 인력계수 시스템(APC)을 기반으로 한 화재 초기 대응 훈련을 함께 했다.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국립소방연구원, 나주소방서와 '스마트 소방활동정보시스템'

시연회와 실증 훈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전KDN이 개발한 지능형 인력계수 시스템(APC)을 기반으로 화재 때 현장 잔여 인원을 증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입체 가상모델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으로 밀폐된 발전소나 위험지역의 소방대상물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다.

현재 '안전분야 대국민서비스'의 하나로 한전 KDN과 한국전력 본사 등에 시범 설치·운영 중이

다.

한전KDN은 국립소방연구원의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 8월 국립소방연구원과 나주소방서, ㈜휴먼인텍과 업무협약을 맺어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스마트 소방활동정보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 안에 인력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2021 감사대상' 사회적가치실현 대상

청렴윤리부문 최우수상 수상도

한국전력이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1 감사대상'에서 '사회적가치실현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열린 시상식에서 한전은 사회적가치실현 부문 대상과 함께 '청렴윤리부문 최우수상' 수상 자에도 선정됐다.

한전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주기 감사 활동 체계를 구축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전사로 확대 하기도 했다.

한전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의 하나

로 총 13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한 내용은 불공정 용역계약 조항 개선, 안전분야 전담인력 확충, 온실가스 의무배출량 준수 등이 있다.

올해는 국민감사판제도를 도입해 전력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들었다.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는 "감사협회 회원사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사회적가치 생태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대상' 시상에서는 (사)한국감사협회가 매년 사회적가치실현, 청렴윤리 분야 등에서 우수한 내부감사 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국에너지공대, 세계 우수 기관과 공동연구소 설립

독일·프랑스 등 연구기관과 협약

내년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텐·KENTECH)가 세계 우수 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맺으면서 공동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전력연구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조합과는 공동연구소를 세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윤의준 총장과 박진호 연구부총장 등이 최근 독일, 프랑스 등을 방문해 연구기관·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18일에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조합, 안할트 대학교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프라운호퍼 연구조합은 내년 설립되는 대학에서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센터 내부에 설치될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 공동연

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상호 인력 교류, 한국-독일 중장기 수소 종합계획 개발을 위한 협업 등을 진행 한다.

특히 공동 연구센터 시설들은 그린 수소 전주기 관점에서 기술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수소 저장 및 운송 분야가 될 예정이다. 대학은 오는 2025년까지 수소 연구를 위한 소규모 실험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안할트 대학과는 공동 학사 및 석사 과정 개설,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활동, 공동연구와 전문기술교육, 연구행사 공동 개최, 교직원과 학생 상호 방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16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는 에너지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기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과학저널 '네이처'에 기여도(2010년 기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